

움직이는 무생물에 대한 유아의 생명현상 인지

Children's cognition of the life phenomenon about moving nonliving things

노보람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이순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움직임이 무생물을 살아있다고 여기게 하는데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동물, 식물, 인공물, 자연물을 사용하여 3, 4, 5세 유아의 생명현상 인지를 조사하였다. 유아의 연령에 따라 제시된 대상에게서 생명현상을 인지하는데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생명현상을 인지하는 근거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참여자는 만3세 31명, 만4세 30명, 만5세 31명 총 92명의 유아로, 장난감 화분에 대한 사전 경험이 있는 유아 0명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도구는 개, 장난감 개, 화분, 장난감 화분, 자동차, 구름의 영상(정지영상 혹은 동영상)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영상마다 30초가량 랩탑 컴퓨터로 제시하였다. 조사원과 유아의 일대일 인터뷰를 통하여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제시된 대상이 살아있는지 여부를 묻는 생명현상 인지 질문이고, 다음은 왜 살아있다고(혹은 살아있지 않다) 생각하는지를 묻는 생명현상 인지 근거 질문이다. 마지막은 대상에게 생물, 심리, 인공물 속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이다. 자료의 분석은 빈도, 백분율, 카이제곱 차이 검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생명현상 인지과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개, 장난감 개 정지영상, 장난감 개 동영상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장난감 개 정지영상 및 동영상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살아있다는 응답비율이 낮아져 연령차가 유의하였다. 2. 화분, 장난감 화분 정지영상, 장난감 화분 동영상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결과 장난감 화분을 살아있다고 응답한 5세의 비율이 낮아지면서, 장난감 화분 정지영상 및 동영상에서는 연령차가 유의하였다. 3. 자동차 동영상의 경우 살아있다고 응답한 5세의 비율이 낮아지면서 연령차가 유의하였지만, 구름 정지영상 및 동영상의 경우 살아있다는 비율이 높았고 연령차가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생명현상 인지 근거과제 경우 범주는 생리성, 외양 및 발성, 범주지식, 무관련 응답으로 구분하였다. 연령에 따라 생명현상 인지 근거에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상대적으로 3세는 무관련 응답의 비율이 높았고, 5세는 근거를 가지고 생명현상 여부를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에게 생물, 심리, 인공물 속성을 어느 정도 부여하는지 비율을 알아본 결과 3세는 모든 대상에게 생물, 심리, 인공물 속성을 높게 부여하였고, 5세는 인공물에게 생물, 심리 속성은 낮고 인공물 속성은 높게 부여하였다.

결론: 인공물(장난감 개, 장난감 화분, 자동차)의 움직임은 5세 유아보다는 3세와 4세 유아에게 대상이 살아있다고 인지되는데 영향을 미치며, 구름은 전 연령의 유아에게 살아있다고 인지된다. 5세 유아는 3세나 4세 유아보다 인공물(장난감 개, 장난감 화분, 자동차)이 생물, 심리 속성은 적고 인공물 속성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근거를 가지고 생명현상 여부를 판단한다.

Key word: 생명현상 인지, 생명현상 인지 근거, 움직임, 무생물